

# Are You Ready for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2023. 1. 18 (수)

**meritz** Strategy Daily

## 전략 공감 2.0

### Strategy Idea

기술적 반등 vs 추세적 반등: Bull/Bear Beta를 통한 ETF 선별

### 칼럼의 재해석

TSMC의 성숙 공정 해외 증설의 배경은?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퀀트/ETF**  
 Analyst **이정연**  
 02. 6454-4895  
 jungyeon.lee@meritz.co.kr  
 RA **최병욱**  
 02. 6454-4876  
 byungwook.choi@meritz.co.kr

# 기술적 반등 vs 추세적 반등 : Bull/Bear Beta를 통한 ETF 선별

- ✓ 글로벌 증시 전반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반등의 기로에 서있는 지수 레벨
- ✓ 경제지표, 기업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정책 기조전환 기대감에 움직임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
- ✓ 최근 혼재된 증시상황에서 Beta를 통해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종목, ETF 선별

증시 하락세 속 등락을 반복

지난해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증시는 추세의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을 보여왔다. 주봉차트로 보면 그 흐름이 명확하다. S&P500 지수는 볼린저밴드 하단(20주 이동평균선 - 2\*표준편차) 근처까지 하락한 뒤 이동평균선까지 회복한 후 다시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됐다. 즉, 볼린저밴드 하단은 지지선 역할, 이동평균선은 저항선 역할을 해왔다.

S&P500 3,900pt는 이동평균선(저항선) 수준

올해 들어 상승한 S&P500의 현재 지수레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으로 회복가능한 3,900포인트대(20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지수가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상반기는 상승세로 추세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반등일지 기로에 서있는 혼재된 상황에서 미국 주식과 글로벌 ETF로 지금의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제시하는 자료이다.



자료: StockChar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tockChart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경기침체, 실적부진, 긴축정책 기조전환 등 증시 상하방 재료 혼재

증시는 금리인상 기조 조기전환 기대감 반영

10월 이후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주된 요인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국 CPI 상승률 하락이 확인된 가운데 최근에도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물가지표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 국고채 10년 금리는 연초대비 37bp 하락한 3.5%에 근접하며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조기전환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증시 상승에도 시장 약재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다만,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예상을 웃도는 물가지표 발표를 우려하고 있으며,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는 50을 밑도는 등 경기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잘 꺾이지 않는 S&P500 EPS 추이는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다. 4분기 실적시즌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3%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실적 기대감도 부채하다.

그림3 미국채 10년 금리, 비트코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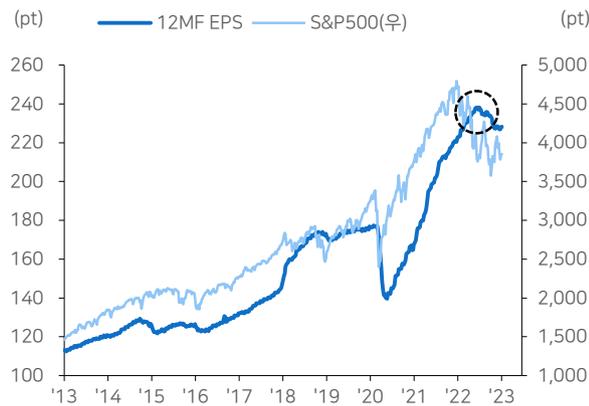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산업생산/설비가동률 생산지표: 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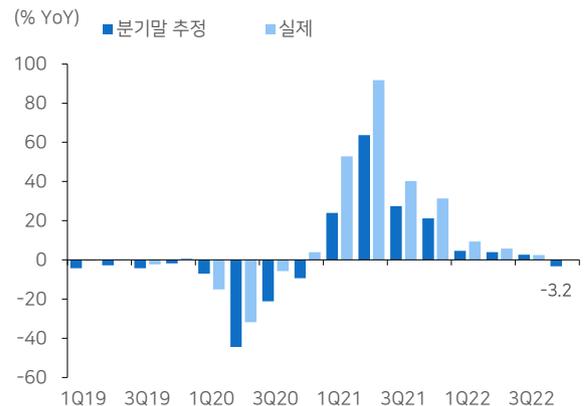
자료: US ISM, Federal Reserv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S&P500 12MF EPS 추이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4분기 실적 전년동기대비 역성장 예상



자료: FactS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악재에 둔감, 호재에 민감한 종목/ETF 선별

정책전환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 따라서 상하방 모두에 대응 가능한 전략 필요

시장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기술적 저항선까지는 올라왔다. 이러한 악재가 지난 1년간 충분히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번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연준의 긴축정책 조기 종료와 같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은 증시 상방과 하방 모두에 대응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호재에 민감, 악재에 둔감한 종목 발굴

경기방어업종과 같이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하기엔 증시 상승 흐름에 못 쫓아갈 수 있으며, 상승흐름에 베팅하기에는 경제, 시장 데이터가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이후 증시 회복 과정에서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진 종목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종목은 Bull beta(시장 수익률 0보다 큰 경우 개별 종목간의 베타값)가 높고 Bear beta가 낮은 종목이다. 긴축기조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확대 이슈가 부각됐던 하락장에서도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으며, 상승장에서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보인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은 크게 3가지(1. 미국 주택건설, 2. 바이오테크, 3. 친환경(원자력, 재생에너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바이오테크와 친환경 분야는 경기와 무관한 성격을 보이는 성장 산업이다. 미국 주택건설의 경우 경기와 금리 모두에 민감도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자심리는 호재성 재료에만 민감한 모습이다. 아래는 해당하는 종목 리스트와 관련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정리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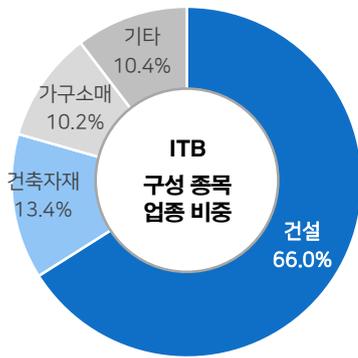
구분	티커	종목명	Bull Beta	Bear Beta	Bull-Bear 차이	업종	사업내용	시가총액 (십억달러)
주택건설	DHI	D R Horton Inc	1.6	0.1	1.5	경기소비재	미국 최대 주택건설 기업	32.7
바이오테크	ILMN	Illumina Inc	2.1	0.7	1.4	헬스케어	유전자 변이 및 기능 분석을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	31.6
주택건설	LEN	Lennar Corp	1.8	0.4	1.4	경기소비재	미국 주택 건설 기업(최초 구매 고객 타깃)	28.2
기타금융	MKTX	Marketaxess Holdings	1.7	0.4	1.2	금융	채권거래 전자플랫폼	12.4
바이오테크	CRL	Charles River Laboratories	1.0	-0.1	1.1	헬스케어	신약 개발 및 임상 개발 서비스 제공	11.8
기타금융	BLK	BlackRock	2.1	1.0	1.1	금융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112.9
기타금융	IVZ	Invesco	2.3	1.2	1.1	금융	투자 관리 서비스 제공	8.8
부동산	DLR	Digital Realty Trust	1.7	0.7	1.1	부동산	부동산 투자 신탁 운용	30.5
주택건설	NVR	NVR	1.6	0.6	1.0	경기소비재	미국 주택건설 기업	16.0
주택건설	PHM	Pultgroup	1.6	0.7	1.0	경기소비재	미국 주택건설 기업	11.6
자동차 부품	APTV	Aptiv PLC	1.8	0.8	1.0	경기소비재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27.5
카지노	CZR	Caesars Entertainment	2.2	1.3	0.9	경기소비재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	10.4
친환경	PNW	Pinnacle West Capital	0.9	0.0	0.9	유틸리티	전통에너지 및 원자력, 태양광 발전 에너지 운송	8.5
바이오테크	CTLT	Catalent	1.1	0.3	0.9	헬스케어	의약품, 치료제, 건강 제품 개발	8.8
원자력	CEG	Constellation Energy	1.6	0.7	0.9	유틸리티	원자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27.8
생명공학	DGX	Quest Diagnostics	0.9	0.1	0.8	헬스케어	진단 테스트 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	16.8
기타금융	TROW	T Rowe Price Group	2.3	1.5	0.8	금융	투자 관리 서비스 제공	26.5
원자력	ETR	Entergy	1.0	0.3	0.7	유틸리티	발전 및 전력 공급	21.7
원격의료	DXCM	Dexcom	1.6	0.9	0.7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41.9
친환경	XEL	Xcel Energy	1.1	0.4	0.7	유틸리티	전통 및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 생산	38.9
친환경	LNT	Alliant Energy	0.8	0.1	0.7	유틸리티	전기 및 천연가스 서비스 제공	13.9
친환경	NEE	Nextera Energy	1.1	0.4	0.6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유통	168.3

주: S&P500 구성종목 기준, 최근 3개월간 일간 수익률 데이터로 개별 베타값 계산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1) 미국 주택건설 ETF: iShares U.S. Home Construction ETF(ITB)

미국 주택건설관련 종목들의 경우 지난해 모기지 금리가 3%에서 7%까지 상승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부진에 주가가 하락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그 동안의 낙폭을 회복중이다. 여전히 부진한 주택관련 지표가 발표되고 있으나 주택건설 관련 종목들이 이미 경기침체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인다. ITB ETF는 미국의 주택 건설, 판매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그림7 iShares U.S. Home Construction ETF(ITB) 업종비중



자료: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구성비중 상위종목 및 비중

종목명	내용	비중 (%)
D.R. Horton	미국 최대 주택건설 기업	15.9
Lennar	미국 건설 기업. 최초 구매 고객 타겟	13.5
NVR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건설, 판매	8.1
Pultegroup	주택 건설 판매 및 모기지 금융 서비스	6.2
Home Depot	건축 자재, 관련 제품 소매 및 임대	4.3
Lowes companies	주택 개량 용품 판매 기업	4.2
Sherwin Williams	페인트, 코팅 관련 제품 개발, 제조, 유통	4.0
Topbuild	정단열재 및 기타 건축 제품 설치, 유통	3.2
Toll brothers	단독주택 설계, 건축, 판매	3.2
Masco	주택 개량 및 건축 제품 제조, 유통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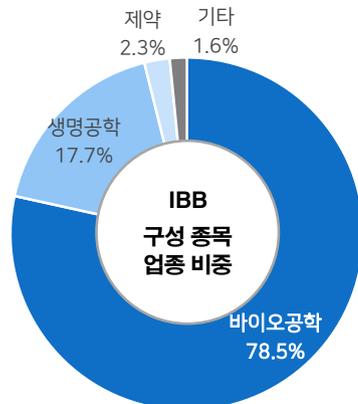
자료: ETF.com,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 바이오기술: iShares Biotechnology ETF(IBB)

#### 바이오기술

바이오기술은 경기와 무관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과 과학분야 R&D예산 확대로 정부 주도 수혜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IBB는 미국 바이오기술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1) 개발 및 연구, 치료제 제조 회사, 2) 도구 및 용품, 시스템 솔루션 제공 기업을 포함한다.

그림8 iShares Biotechnology ETF(IBB) 업종비중



자료: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구성비중 상위종목 및 비중

종목명	내용	비중 (%)
Gilead Sciences	의약품 및 치료제 개발 기업	7.8
Amgen	암 등 불치병 관련 생명공학 치료제 개발	7.6
Vertex Pharma.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승인 획득	7.1
Regeneron Pharma.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연구	6.8
Moderna	mRNA 기반 의약품 개발	5.6
IQVIA Holdings	헬스케어 전 분야 토탈 서비스 제공	3.8
Biogen	관절염 등 질병 대응 가능 치료법 개발	3.8
Mettler-Toledo Int.	정밀 기기 제조, 판매, 서비스 제공	3.2
Illumina	유전자 분석 통합 시스템 개발 및 판매	2.9
Alnylam	RNA 기반 치료제 개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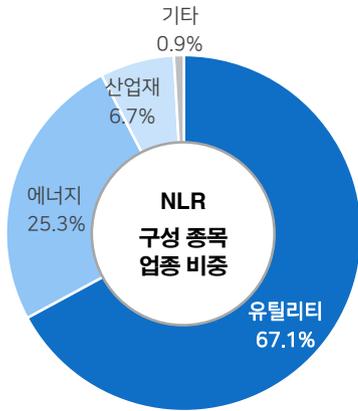
자료: ETF.com,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3) 원자력+우라늄 ETF: VanEck Uranium+Nuclear Energy ETF(NLR)

원자력/우라늄

MVIS®Global Uranium & Nuclear Energy Index 지수 성과를 추종하는 ETF이다. 해당 지수는 1) 우라늄 광산 소유 혹은 우라늄 채굴 프로젝트 실행 중목 중상기 사업으로부터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2) 원자로 건설, 보수/유지, 3) 원자력 발전, 4) 원자력 관련 장비 및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9 VanEck Uranium, Nuclear Energy ETF(NLR) 업종비중



자료: VanEck,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구성비중 상위종목 및 비중

종목명	내용	비중 (%)
Dominion Energy	전기, 천연가스 생산. 원자력 발전소 보유	8.3
Public Service	전력 및 가스 판매. 원자력 발전소 보유	8.0
Cameco	우라늄 생산, 탐사, 개발, 채굴업체	6.2
Constellation Energy	원자력,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발전업체	6.1
Pg&E	전기, 가스 유통. 원자력 발전소 보유	5.8
Entergy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등 전력 생산	5.7
Electricite De France	프랑스 전력 회사. 원자력 발전소 보유	4.9
Cez	체코 중심 복합기업. 원자력 발전소 보유	4.7
Nexgen	캐나다 본사 우라늄 채굴 기업	4.6
Endesa	스페인 전력 회사. 원자력 발전소 보유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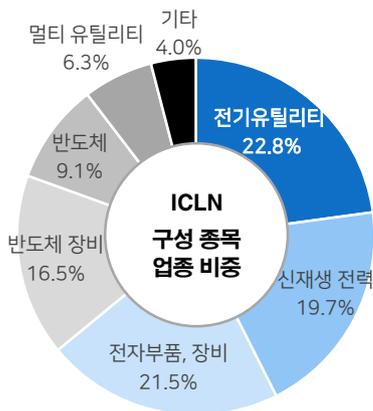
자료: ETF.com, VanEck,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4) 신재생에너지 전반: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ICLN)

신재생에너지 전반

1)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체(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 지열, 에탄올&알코올연료, 수소전력)와 2)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장비(수소 터빈, 연료 전지 등)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매출 비중 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한다.

그림10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ICLN) 업종비중



자료: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구성비중 상위종목 및 비중

종목명	내용	비중 (%)
Vestas Wind Systems	풍력발전 터빈 생산, 설치, 서비스 제공	7.5
Enphase Energy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제공	6.8
Iberdrola	풍력 발전 자회사 보유. 스페인 본사	6.7
Consolidated Edison	뉴욕 전기서비스 제공. 태양광 발전	6.3
First Solar	미국 소재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6.0
Solaredge Tech.	태양광 인버터솔루션 제공, 이스라엘 소재	5.9
Orsted	해상풍력 발전. 덴마크 다국적 전력회사	3.8
EDP Energias	태양광패널활용 전력생산. 포르투갈 소재	2.9
Plug Power	전기차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	2.9
Centrais Eletr Bras-El.	브라질 최대전력회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2.6

자료: ETF.com, iShar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김동관 연구원

**TSMC의 성숙 공정 해외 증설의 배경은?** (Digitimes)

TSMC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를 통해 일본과 유럽에서의 성숙 공정 추가 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장비 입 규제 등으로 28nm 이상 성숙 공정은 중국 파운드리선 선단 공정 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성숙 공정 생산능력을 올려 낮은 단가를 무기로 점유율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TSM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성숙공정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현재 IT 제조업에서의 전반적인 중국의존도 낮추기 흐름이 눈에 띈다. Dell, 애플 등이 공급 사슬 내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또한 TSMC가 유럽 증설 목적으로 검토 중인 차량용 반도체는 제품 특성 상 품질 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응용처이다. 고객사와의 장기간 품질 인증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보다도 TSMC의 품질 경쟁력이 돋보일 수 있는 부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 IDM 업체 대부분은 TSMC의 고객사로서 전체 IDM의 차량용 반도체 70% 정도를 TSMC가 위탁생산하고 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동화 트렌드가 이어질수록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TSMC의 현재 검토 중인 투자는 이렇듯 견조한 수요 전망과 자사의 기술 성숙도 등에 기반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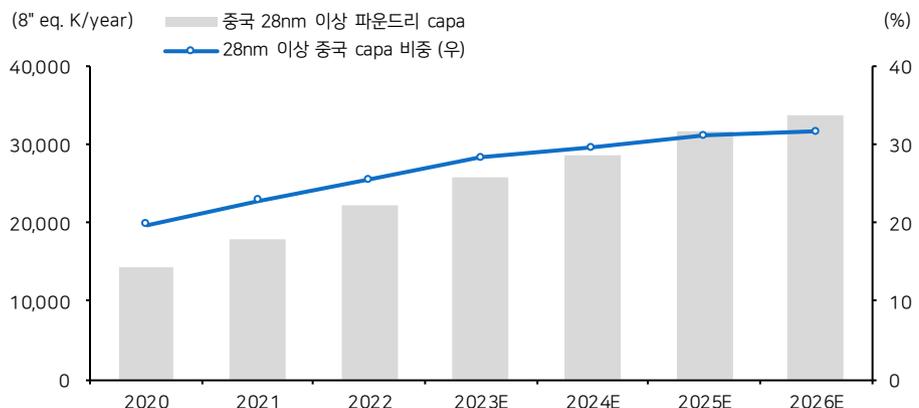
**TSMC, 실적 발표회 통해 해외 성숙 공정 팹 증설 가능성 언급**

TSMC, 해외 공장 투자 검토 사실 발표

TSMC는 지난 1월 12일 실적발표회를 통해 유럽 내 차량용 반도체 공장 건설 검토, 일본 구마모토 추가 공장 건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두 공장은 모두 28nm 이하 급의 성숙 공정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SMC는 삼성전자와 함께 최첨단 공정 기술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파운드리 선두업체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성숙 공정 파운드리는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분야이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선단 공정 장비 반입이 어려워진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은 당분간 더욱 성숙 공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낮은 생산 단가를 무기로 하는 중국 파운드리와 맞서 TSMC가 성숙공정 증설을 타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1 중국 28nm 이하 파운드리 capa 및 비중**



자료: Gartn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 외 공급처 확보 및 공급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 강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업체들의 노력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생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올해부터 애플은 본격적으로 맥북·아이폰 등을 베트남과 인도 등에서 생산한다. 최근 Nikkei Asia의 보도에 따르면, Dell은 자사의 PC에서 중국산 반도체 사용 비중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내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에 그만큼의 부담이 따른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가능성 제기

한편 TSMC 공장의 대부분이 위치한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산업계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발간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 등은 대만 침공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 속 생산지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며 유럽, 일본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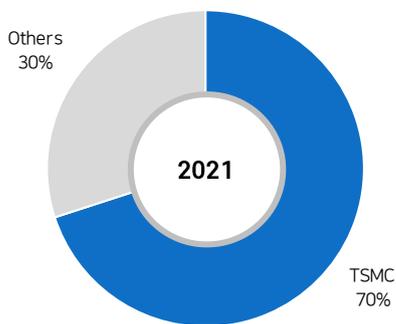
안정성, 품질 중요해 단가만으로  
공급업체 선정 어려워

TSMC 증설의 또 다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오작동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사와의 품질 인증 등에 1~3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수명 주기가 길고, 공급 안정성과 품질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낮은 파운드리 단가만으로 공급업체를 바꿀 가능성이 낮은 제품이다. 현재 유럽의 차량용 반도체 IDM들은 대부분 TSMC에 외주 생산을 맡기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IDM 위탁 생산의 70%를 TSMC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차량용 반도체 자급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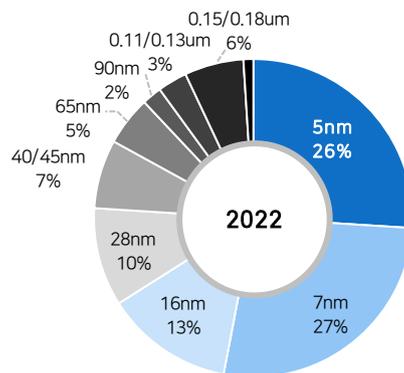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대만,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CATRC)에 따르면, 2~3년 후에도 중국 내 생산 능력으로 중국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 IDM 차량용 반도체 위탁 생산 비중



자료: TSM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TSMC의 공정 별 매출 비중 (2022)



자료: TSM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고성장세 예상되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향후 뛰어난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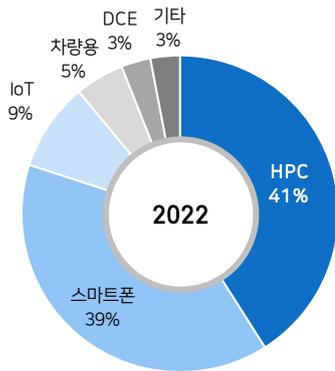
TSMC의 2022년 전체 매출액에서 7nm 이하 선단 공정의 비중은 53%이다.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하나 모든 응용처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HPC 부문이 +59%, IoT 부문이 +47%를 기록한 반면 차량용 부문은 +7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PC 등 전통적인 반도체 응용처의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향후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문 중 하나이다.

내연기관차의 전동화가 이어질수록 반도체 수요도 증가

컨설팅업체 Roland Berger에 따르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탑재되는 천 개 이상의 반도체 중 95%는 성숙 공정에서 생산된다. 한편 전기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중 성숙 공정의 비중은 절반 수준이나 일반적으로 전기차에는 3,000개 이상의 칩이 사용된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성숙 공정 캐파 수요는 향후 전기차의 침투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하자면, 최근 TSMC의 해외 성숙 공정 증설은 중국 파운드리 대비 우위에 있는 안정성과 품질,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수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등이 결합한 결과이다. 한차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홍역을 치른 산업계의 전방위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4 TSMC 응용처 별 매출비중 (2022)



자료: TSM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TSMC 응용처 별 매출액 성장률



자료: TSM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Why is TSMC suddenly interested in producing mature chips overseas, undaunted by China's price dumping? (Digitimes)*